

'쿠에바스' 시즌 6승' KT 위즈, NC 다이노스 8-1로 완파

불안한 1위 달리고 있는 'NC 다이노스' 제압

쿠에바스, 5피안타 1볼넷 2탈삼진 무실점 호투

로하스, 시즌 31호 솔로홈런 포함 4타점 맹활약

KT 위즈가 불안한 1위를 달리고 있는 NC 다이노스를 제압했다.

KT는 24일 수원 KT위즈파크에서 열린 '2020 신한은행 SOL KBO리그' NC 다이노스와의 홈경기에서 선발 윌리엄 쿠에바스의 호투와 4타점을 몰아친 벨 로하스 주니어의 활약을 앞세워 8-1로 완승했다.

2연승을 올린 KT는 시즌 47승1무3패를 기록해 5위를 달리고 있다.

KT는 안방 3연패에서 탈출했고, 최근 NC전 4연승 행진을 이어갔다.

쿠에바스는 이승 1위를 달리고 있는 드류 루친스키를 상대로 판정승을 거뒀다.

쿠에바스는 6이닝 동안 5피안타 1볼넷 2탈삼진 무실점 호투로 시즌 6승째(4패)를 수확했다.

최근 2연패에서도 벗어났다. 홈런왕을 향해 달리고 있는 로하스는 시

즌 31호 솔로 홈런을 포함해 5타수 2안타 4타점 2득점으로 승리에 기여했다.

1위 NC는 2연패를 당해 시즌 51승2무3패를 기록했다. NC는 2위 키움 히어로즈(55승38패)에 0.5경기차로 추격을 허용했다.

NC 에이스 루친스키는 5이닝 11피안타(1피홈런) 7실점으로 무너졌다. 시즌 3패째(12승)를 당했다. 수원구장 4연승, KT전 3연승 행진도 마감했다.

KT가 선취점을 뽑았다.

2회말 예정대의 볼넷과 박승욱의 우전 안타로 득점 찬스를 만든 KT는 심우준의 적시타로 1점을 뽑았다.

KT는 5회 로하스의 솔로 홈런으로 1점을 추가했다.

승기를 잡은 KT는 6회 빅이닝을 만들었다.

6회 선두타자 배정대, 장성우, 박승욱의 연속 안타로 1점을 추가한 KT는 이후 1사만루 기회를 잡았다. 곧바로 로하스가 3타점 2루타를 터뜨려 췌기를 박았다. 이어 강백호의 적시타에 힘입어 8-0으로 달아났다.

NC는 7회초 이명기의 적시타로 1점을 만회했다. 그러나 승부는 이미 기운 후였다.

쿠에바스에 이어 등판한 이창재, 유원상, 김민은 나머지 3이닝을 책임졌다.

한화 이글스는 잠실구장에서 벌어진 LG 트윈스와의 원정경기에서 14안타를 몰아쳐 6-3으로 역전승을 거뒀다.

투타자 이용규는 5타수 3안타 1득점으로 활약했고, 5회초 강경학은 동점 적시타, 브랜든 반즈는 결승 적시타를 때려내 승리를 이끌었다. 노시환은 5타수 3안타 2득점, 노수광은 5타수 2안타 1타점 1득점을 기록했다.

한화 선발 김이환은 승리투수가 되지 못했지만, 4이닝 1피안타 3볼넷 5탈삼진 1실점(비자책점) 호투로 역전승의 발판을 마련했다.

김진영, 박상원, 윤대경, 강재민 등 한화 불펜진은 무실점 계투를 선보였다.



4일 오후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20 신한은행 SOL KBO리그' 키움 히어로즈 대 kt 위즈의 경기, 4대 2로 승리한 kt 선수들이 자축하고 있다.

3연승을 올린 한화는 시즌 25승1무63패를 기록했다. 여전히 최하위에 자리했다.

2연패를 당한 LG(51승1무38패)는 두산 베어스(50승2무38패)에 3위 자리를 내주고 4위로 내려앉았다.

LG 선발 정찬현은 5이닝 9피안타 3실

점 투구로 시즌 3패째(5승)를 당했다.

LG는 9회말 정주현의 2타점 2루타로 추격을 시작했지만, 후속 타선이 터지지 않아 추가점을 뽑지 못했다.

한편, LG는 KBO리그 역대 두 번째로 팀 4500도루를 달성했다.

'여권 위조' 호나우지뉴, 벌금 내고 6개월 만에 풀려나

'유죄 인정'... 벌금 2억3700만원 낸 뒤 조건부 석방



전 브라질 축구선수 호나우지뉴가 24일(현지시간) 파라과이 아순시온의 법원 유리창을 통해 판사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인다. 호나우지뉴는 지난 3월 위조 여권으로 파라과이에 입국한 혐의로 3월 초부터 구금됐다가 벌금을 내고 풀려나 고향인 브라질도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여권 위조 혐의로 파라과이에서 가택 연금 중이던 브라질 축구 스타 호나우지뉴(40)가 6개월 만에 풀려났다.

영국 매체 더선은 25일(한국시간) "여권 위조로 파라과이에 갇혀 있던 호나우지뉴가 6개월 만에 브라질 고향으로 돌아간다"라고 보도했다.

호나우지뉴는 지난 3월 친형과 함께 파라과이 입국 과정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체포돼 아순시온 교도소에 수감됐다.

현역 시절 '외계인'으로 불린 호나우지뉴는 교도소 풋살대회에 참가하는 등 화제를 모기도 했다.

이후 4월 160만 달러(약 199억원)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 뒤 파라과이의 한 4성급

호텔에서 가택 연금에 들어갔다.

법원은 호나우지뉴가 여권 위조에 직접 가담하진 않았지만, 그의 형인 호베르투는 여권 위조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했다.

결국 호베르투가 유죄를 인정하고 15만 2000파운드(약 2억3700만원)의 벌금을 낸 뒤 조건부로 석방됐다.

호나우지뉴는 향후 2년간 거주지를 변경할 경우 파라과이 당국에 이를 알려야 한다.

스페인 명문 FC바르셀로나에서 전성기를 보낸 호나우지뉴는 국제축구연맹(FIFA) 올해의 선수상 2회(2004, 2005년), 발롱도르 1회(2005년) 등을 수상한 축구 전설이다.

2002 한일월드컵에선 조국 브라질의 우승을 이끌기도 했다.

뉴스스

화순군 학생 선수, 복싱·배드민턴 대회서 두각

복싱 금2 동1·여고부 우승...배드민턴 혼복 우승



화순 전남기술과학고 복싱부가 제50회 대통령배 전국 시도복싱대회에서 금 2개, 동 1개를 획득하며 코로나를 힘들어하는 군민들에게 작은 기쁨과 위안을 줬다.

지난 18일~23일 충남 청양군에서 열린

대회에서 '여자 고등부' 60kg급 김민진(2학년) 선수가 69kg급 강예니(1학년)가 금 메달을 획득하며 여자고등부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남자 고등부' 60kg급 박수인(2학년) 선수는 동메달을 획득했고, 박지선 코치가 지도자상을 받아 화순 복싱의 위상을 높였다.

배드민턴 대회에서도 화순 선수들이 두각을 나타냈다.

지난 17~23일 밀양시에서 열린 한국 중고 배드민턴연맹 회장기 전국학생선수권대회에서 김하민(기과고 1)선수와 공여진(화순고 1)선수가 고등부 1학년 혼합 복싱에서 우승했다. 여자 복싱에서 정다연(화순고 1)선수와 공여진(화순고 1) 선수가 3위에 올랐다.

화순=박순철 기자

추신수, 5경기 연속 결장...텍사스, 8연패 탈출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전 이후 종아리 부상

추신수(38·텍사스 레인저스)의 결장이 깊어진다.

추신수는 25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 글로브라이프필드에서 열린 2020 메이저리그 오를랜드 애슬레틱스와 경기에서 결장했다.

지난 20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전에

서 4타수 무안타로 침묵한 추신수는 이후 종아리 부상 등으로 5경기 연속 쉬고 있다.

그의 시즌 성적은 21경기 타율 0.211(71타수 15안타) 3홈런 10타점에 머문다.

전날(24일)까지 8연패 수렁에 빠졌던

텍사스는 오를랜드를 3-2로 꺾고 연패 탈출에 성공했다.

텍사스는 1회초부터 1점을 내줬지만 1회말 1사 2, 3루에서 토드 프라이저의 2타점 중전 적시타로 경기를 뒤집었다.

2-2로 맞선 2회말에는 아이제야 키너-팔레파가 우월 솔로타이를 그려 다시 리드를 잡았다.

이후 탄탄한 마운드의 힘으로 1점 차 승리를 지켜냈다.

텍사스 선발 투수 랜스 린은 6이닝 5피안타 8탈삼진 2실점으로 호투해 승리를 따냈다.

신한동해오픈, 5년 만에 KPGA 단독 주관

남자프로골프 메이저급 대회인 신한동해오픈이 5년만에 순수 KPGA 코리안투어로 열린다.

신한금융그룹은 다음달 10일부터 나흘간 인천 베어즈베스트청라 골프클럽에서 열리는 제36회 신한동해오픈을 KPGA 코리안투어 단독 주관 대회로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국내 단일 스폰서 대회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신한동해오픈은 2016년부터 아시아투어가 공동 주관했다.

지난해에는 일본프로골프투어(JGTO)가 가세해 3개 투어 공동 주관으로 진행했다.

평균 18개국 참가하는 국제대회였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여파로 올해는 KPGA가 단독 주관하

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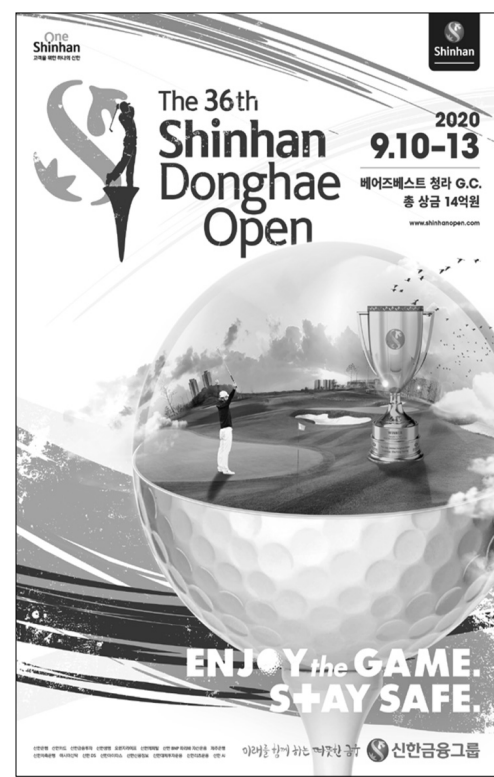
대회 조직위는 외국인 선수의 입국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져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내 거주중인 아시아투어 멤버들을 위해서는 대회 참가자격 조정을 통해 일부 출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둘 계획이다.

대회 우승자는 5년간의 코리안투어 출전권과 함께 2021년 시즌 아시아투어 대회 출전 자격이 제공된다.

'가족과 함께하는 신한동해오픈'을 표방하며 매년 2만명이 넘는 갤러리가 대회를 찾았던 신한동해오픈은 올해 안전한 대회운영을 위해 무관중으로 진행되는 대회를 준비했다.

JTBC골프채널과 위성을 통해 60개국 이상에서 전 라운드 생중계된다.



강진군체육회, 지역 우수 인재 발굴 힘 보태

강진군체육회가 지난 24일 강진군체육회 사무실에서 방과 후 테니스 수업 수강 학생들에게 테니스 공 3박스(1박스 당 테니스공 7개) 증정을 약속하는 협약식을 가졌다.

부회장단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강진군체육발전을 위해 체육 꿈나무들에게 릴레이 기부를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는 테니스 종목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추진한다.

강진군체육회는 6월 5일 강진청자배 남녀 배드민턴 동호인대회 개최시 강진군배

드민턴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해 6월 27일 강진군수배 생활체육 게이틀볼 대회 때에는 강진군게이트볼협회와, 7월 27일에는 강진군골프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관내 체육 꿈나무들에게 스포츠 용구 등 소정의 물품을 증정했다.

또한 향후 강진군체육회 등 타 종목 협회와의 업무협약을 추진해 관내 우수 체육 꿈나무 선수들이 스포츠에 매진할 수 있도록 릴레이 기부 활동을 펼쳐갈 계획이다.

강진=김영일 기자

이승우, 시즌 첫 선발...전반 45분만 소화

벨기에 프로축구 주필러리그에서 뛰는 이승우(신포트로위던)가 시즌 첫 선발 출전 기회를 잡았으나 공격 포인트를 뽑아내진 못했다.

이승우는 25일(한국시간) 벨기에 신포트로위던의 홈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0~2021시즌 벨기에 프로축구 주필러리그 오스텐데전에 선발로 뛰었다.

이승우가 처음부터 경기를 시작한 것은 올 시즌 처음이다. 겐트와의 개막전에는 후반 교체로 등장했고, 안더레흐트와의 2라운드에는 결장했다.

이승우는 날카로운 슈팅으로 상대 골문을 노렸으나 득점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전반 22분에는 시뮬레이션 액션으로 옐로카드를 받았다.

이승우는 후반 시작과 동시에 수비수인 조나단 부아투와 교체됐다.

전반 42분 수비수인 호르헤 테세이라의 퇴장을 당해 수적 열세에 몰린 신포트로위던은 이승우를 빼고 수비진을 강화했다.

두 팀은 득점 없이 비겼다. 신포트로위던은 1승1무1패를 기록했다.